

건축문화 **시·공간**

Vol.035 10.OCTOBER 2012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시·공간**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시공'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2. 10

035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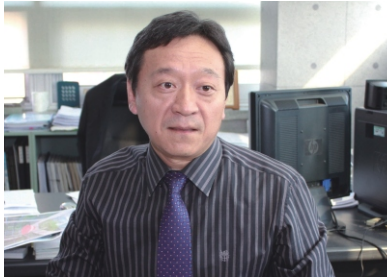
전국 9,000여 건축사가 한자리에...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



인터뷰_ 사람 & issue

전북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주영민 건축사



인터뷰_螢窓雪案

전남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교수



무안고등학교 이설 공사 설계경기

시론 02

광주 근교권에도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시점 _ 이건철

설계경기 03

무안고등학교 이설 공사 설계경기

특별기획 04-05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_ 건축사, 삶을 짓다

서양건축 06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2부 _ 김경원

사람 & issue 07

철저히 기본에 충실한 설계, 그리고 자존심... 건축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지요_ 주영민

전통건축 08

전통건축문화 이야기 1부_ 강대호

螢窓雪案 09

건축설계경험을 교육과 접목하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_ 이재홍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일 시_ 2012. 10. 25(목)~26(금)
장 소_ 김대중컨벤션센터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주 최_ 대한건축사협회(KIRA)
주 관_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 시_ 2012. 10. 25(목)~28(일)
장 소_ 김대중컨벤션센터
주 최_ 광주광역시
주 관_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근교권에도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시점



이건철 원장
전남발전연구원
gglee@jeri.re.kr

광주근교권에 전원형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권 제3순환도로(담양 수북~장성 진원~나주 산포~화순읍)와 광주 문화중심도시, 빛가람혁신도시 건설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의 성장이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외연팽창(外延膨脹)’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3순환도로변이 주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살리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원형 주거단지로서 한옥형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저렴한 소비자

-본문 중

그 동안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답게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어 왔으나, ‘아파트=고급 주거지’라는 기존 인식에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먼저 주거의 트렌드가 편리성보다는 쾌적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 2011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쾌적성을 담보하는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아파트가 이끌었던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면서, 부동산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편리성이나 환금성으로 인한 투자가치보다 토지로 인한 잠재가치나 독립성에 기반한 거주가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1인당 GDP 상승에 따라 다변화되는 주거수요

무엇보다 1인당 GDP 상승에 따라 주거수요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소득수준과 선호하는 주택의 추이를 보면, 1만달러 미만이면 단독주택을 선호하다, 2만달러까지는 아파트나 고급빌라를, 2만달러를 초과하면 고급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3만달러를 초과하면 다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2만달러를 초과하면서 쾌적성을 중시하는 풍조까지 맞물려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대도시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생활을 위한 저밀도 주거단지를 동경하며, 주거단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자연환경(친환경 주거단지), 직장과의 거리, 자녀교육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또 보행 중심의 생활패턴이 정착되면서 주거지 입지도 도시의 교외지역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과거 4인에서 1~2인으로 가구 구성원이 감소하여 저렴한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밖에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노인맞춤형의 새로운 주택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땅콩주택, 도시형 타운하우스 등의 보급 확대가 실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탈아파트 추세가 심화되면서 2011년도 단독주택용지 판매량이 2010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47%, 수도권은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주택보급을 초과,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 대한 반감이 결합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상품이 아닌 실 거주 목적으로 관점이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같은 단독주택 선호는 60세 이상의 은퇴자고령자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단독주택 수요 확대에 힘입어 이미 수도권 근교를 중심으로 전원형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강남에서 불과 35~40분 소요되면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가평군의 「골든 네이처빌리지 청평단지」와 「발트하임 33」, 용인시의 「발트하우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광주근교권에도 전원형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권 제3순환도로(담양 수북~장성 진원~나주 산포~화순읍)와

광주 문화중심도시, 빛가람혁신도시 건설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의 성장이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외연팽창(外延膨脹)’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3순환도로변이 주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만 2014년까지 차질없이 건설되더라도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가족 포함 1만 6천여명)과 관련 기업·연구소 종사자(3만 5천여명) 등 5만여명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광주시의 도시성장패턴과 제3순환도로, 혁신도시 건설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쾌적한’ 전원형 주거단지를 혁신도시와 가까운 승촌지역과 그린벨트로 묶여있지 않은 담양의 대덕분기점 인근지역에 우선 조성하되,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살리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살리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첫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원형 주거단지로서 한옥형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의 고령화 지역이자 ‘예향’이라는 특성을 살려 이에 대비한 전원형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민 가운데서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형 주택단지이자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체류공간으로서 한옥주거단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주와 담양에 한옥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나주의 ‘목사골’과 담양의 ‘가사문학 산실’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정착 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저렴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Common Space’라고 하는 공동정원에 연속 저층으로 건축된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가진 1~3층의 단독주택이 10~100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단독주택 군을 지칭한다. 마당은 나누어 쓰지만 출입문은 가구마다 따로 마련되어 있어 하나의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각 세대는 합벽선을 기준으로 완벽히 독립되므로 내외부에 프라이버시가 확보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법 및 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거행태이다. 또 세대별 정원이 갖추어져 접지성이 높을 뿐 아니라 친자연적 주거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원형 주거단지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택정책 기초를 정부나 건설업자 위주에서 주택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원형 주거단지의 유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기능을 분담하되, 공공에서는 아파트 공급 위주의 관련법들을 개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풍부한 개발가능지와 지속적인 개발수요를 활용해 ‘탈아파트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원형 주거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 모금운동

건축사회원의 이름으로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을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빛낼 수 있습니다!

-협찬금 납부방법

계좌번호 : 신한 131-015-470552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협찬금을 지원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홍보책자의 기부자 명단에 수록됩니다.

협찬금 납부 및 약정서 제출 건축사/유관기관 단체

〈협찬금 납부〉				〈약정서 제출〉			
(주)영무건설	박재홍	3,000,000원	남화토건(주)	최상준	1,000,000원	(주)라인. 남흥	공벽탁 3,000,000원
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김상열	2,000,000원	남도건설(주)	이웅평	1,000,000원	진아건설(주)	조청환 3,000,000원
(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길종일	2,000,000원	(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	이강일	1,000,000원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김희현 1,000,000원
(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오규열	2,000,000원	남해종합건설	김형석	1,000,000원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김동선 500,000원
(주)유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2,000,000원	(주)하나건설	박만수	1,000,000원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심상봉	2,000,000원	(주)유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관식	1,000,000원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민국	
(주)다인 건축사사무소	이범국	2,000,000원	(주)유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진경선	1,000,000원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나승문	
			(주)경향종합 건축사사무소	양기봉	1,000,000원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 장정수	
(주)승 건축사사무소	문강욱	500,000원	(주)창원기공	강만식	1,000,000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 류연창, 김갑동, 박상구	
(주)승 건축사사무소	문인호	500,000원	건축사사무소 선명	강석훈	1,000,000원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장동일	협찬금 1,000,000원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500,000원				칸 건축사사무소	김기탁 300,000원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김권수	500,000원	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	강기석	300,000원	이조 건축사사무소	윤양현 300,000원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한명석	500,000원	미주 건축사사무소	김현중	300,000원	(주)H그룹 건축사사무소	선기택 300,000원
(주)현진 종합건축사사무소	심문기	500,000원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300,000원	영산이엔지 건축사사무소	김종철 300,000원
초석 건축사사무소	정상채	400,000원	건축사사무소 목우	손권욱	300,000원	일우 건축사사무소	김선영 300,000원
			수전 건축사사무소	조후환	300,000원		
시엠 건축사사무소 / 김석호	대진 건축사사무소 / 최승민		너울 건축사사무소 / 김민호	건축사사무소 이감 / 박진호		(주)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유연욱	건축사사무소 미기온 / 이순미
(주)흥 건축사사무소 / 박재홍	동신 건축사사무소 / 이광현		뉴텍 건축사사무소 / 김선재	대호 건축사사무소 / 송 건		(주)이공디벨로퍼 건축사사무소 / 김재도	에스포유 건축사사무소 / 최 윤
(주)중원 건축사사무소 / 심상재	디지털그린현대 건축사사무소 / 강성철		에덴 건축사사무소 / 김성룡	한미 건축사사무소 / 송양석		건축사사무소 삼정 / 주형진	우리 건축사사무소 / 문창식
신일 건축사사무소 / 천도길	건축사사무소 시람 / 신영은		송림 건축사사무소 / 김진형	한솔 건축사사무소 / 신종열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 진수성	연 건축사사무소 / 김형민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정관성	나래 건축사사무소 / 이해란		선호 건축사사무소 / 노정만	미도 건축사사무소 / 류연도		(주)트림 건축사사무소 / 오준석	건축사사무소 룰 / 김승률
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안성섭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 노진욱		이상 건축사사무소 / 박명호	엘림 건축사사무소 / 장경록		(주)건축사사무소 열일필 / 이관욱	(주)해피마키 건축사사무소 / 김승용
			건축사사무소 유림 / 박난남	(주)민 건축사사무소 / 장경민		(주)대우 건축사사무소 / 김유곤	
			무진 건축사사무소 / 강성진	건축사사무소 규성 / 김성국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임경희	
			국일 건축사사무소 / 강성호	건축사사무소 선 / 서재형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기준	
협찬금 : 200,000원						협찬금 100,000원	

학교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화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교육이 질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적정규모의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무안지역 고등학교(무안고, 해제고, 현경고)를 “무안고”로 통·폐합하여 이설하는 사업 취지를 잘 나타내고, 이설 예정 부지의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전국의 선도적 농어촌 거점고로서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당선작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우수작 (주)유탭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 최재영, 가작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기준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순으로 입상하였다. 심사위원 : 광주대학교 윤재희, 순천대학교 이재홍, 전북대학교 진정, 동신대학교 손승광, 우석대학교 최승희, 전남대학교(여수) 정금호, 동신대학교 남기봉, 한려대학교 오종섭, 우석대학교 강석표, 호남대학교 김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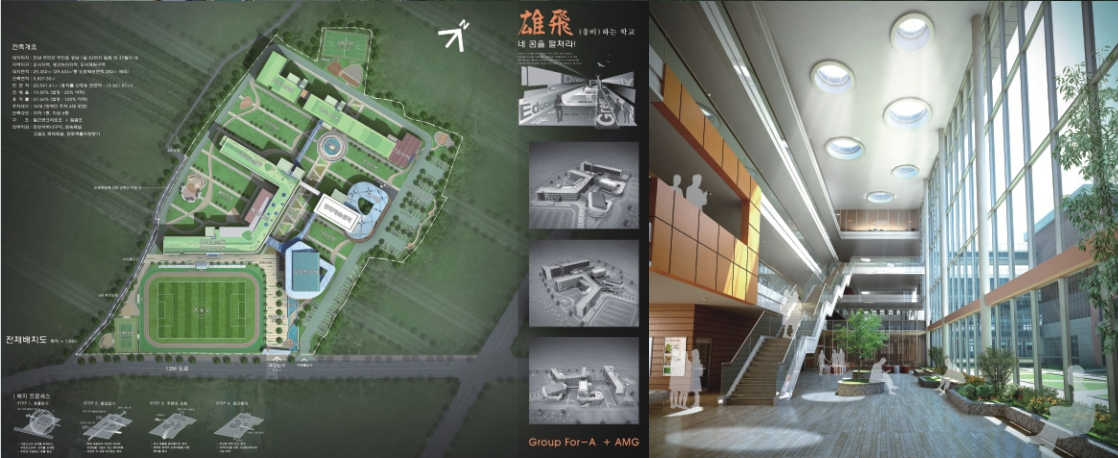
무안고등학교 이설 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을 성남1길 53번지 일원 외 37필지내
- 대지면적 : 29,634㎡
-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 도로현황 : 남측 12m도로
- 연 면 적 : 20,541.41㎡
- 건축면적 : 5,827.55㎡
- 건 폐 율 : 19.85%
- 용 적 율 : 67.66%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주요마감 : 금속패널, 고밀도목재패널, 점토치장벽돌, 화강석 버너구이



우수작 (주)유탭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 최재영



출품작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정영법 건축사



출품작 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안성섭 건축사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빛고을의 10월을 설계하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려
 “時 + 文 = 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 라는 주제로 전국 9,000여 건축사가 한자리에...



대한민국 건축인들의 축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0년 경기대회에서 차기개최 시화로 선정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광주 건축사회에서는 약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호 특별기획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라는 구호아래 건축사 화합과 교류의 문화축제의 장이될 이번 대회를 100배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요

- 대회명칭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영문명칭 :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 일 시 : 2012. 10. 25 (목) ~ 26 (금)
- 본 대 회 : 2012. 10. 26 (금)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참가인원 : 전국 16개 시·도 건축사 회원 9,000여명
-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KIRA)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후 원 :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대회주제 및 슬로건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건축사” 화합과 교류의 문화축제

주제 해석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 = 건축사”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를 창조하는 일, 사람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짓는 건축사의 시대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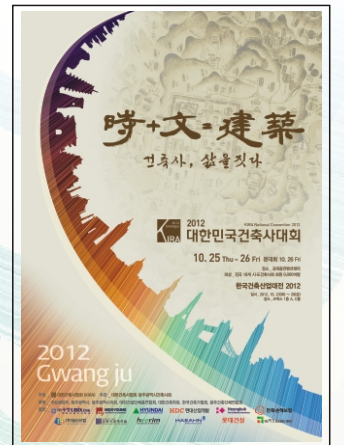
엠블럼



대한건축사협회 KIRA를 모티브로 사람과 도시,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ROAD-길'과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세계 속의 한국건축을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가단체가 대한건축사협회 (KIRA)임을 나타냄.

포스터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 종합 일정표 / 24일~25일

시 간	10월 24일 (수) 건축인의 밤
18:00~20:00	▲건축인의 밤 - 홀리데이인 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
시 간	10월 25일 (목) 대회 1일자
11:00~12:00	▲제9회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개관 - 테이퍼 커팅식, 하운딩, 오찬
14:00~17:00	▲광주, 전남 건축물 투어 투어코스 ①기사문학원 : 소재원, 식영정, 환벽당, 기사문학관 ②무등산권 : 의재미술관, 우재길미술관, 전통문화관, 증심사 ③근대문화역사권 : 선교사택, 오원기념각, Bell 기념관, 사직 공공예술 프로젝트 ④아시아문화전당권 : 아시아문화전당, 여반폴리 ⑤비엔날레코스
15:00~17:00	▲건축사의 가족합창제 - 16개 시·도회 참가팀 - 축하공연, 참가자 만찬 - 장소 : 홀리데이인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
18:00~20:00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선포식 및 환영만찬 - 개회식, 대회소개, 선포문 낭독 -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 홍보 영상물 상영 - 만찬 - 기념품 전달 ※초청 내외빈, 기자단 언론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행사 종합 일정표 / 26일

시 간	10월 26일 (금) 대회 2일차 / 본대회
09:00~13:00	▲접수/등록
10:00~12:00	▲심포지엄/세미나
12:00~13:00	▲참가회원 오찬(점심식사)
13:00~13:30	▲홍보영상물 상영
13:30~17:00	▲공식행사 - 영접 및 의전 - 식전공연 - 개식영상 - 개식인사 - 입장식 - 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개회선언 - 건축사헌장 낭독 - 주제영상 상영 - 명예회원증 수여식 - 기금전달 - 차기개최지 발표 - 폐회 ▲축제한마당 - 오프닝 공연 -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 시상 및 최우수상팀 앵콜 공연 - 축하공연 3팀 - 행운권 추첨(각 지회별 2회, 전체 취합 행운권 추첨 1회) - 건축사 그룹사운드와 함께하는 합동 공연 및 폐회
시 간	10월 26일 (금) 대회 2일차 / 부대행사
09:00~17:00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여성회원협의회 영아보육시설돕기 - 쉼터, 편의점 운영 - 운영품목 : 전동차, 커피, 간편다과 판매 등 ▲빛고를 광주 “맛” 체험존 운영 - 지역 특산물 업체 참여를 통해 다양한“맛”거리 형성, 무료시식 및 판매 병행

▶ 주요 관계 행사 안내

▲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 예선 및 본선

- 일 시 : 2012. 10. 25 (목) 14:00~17: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상금 및 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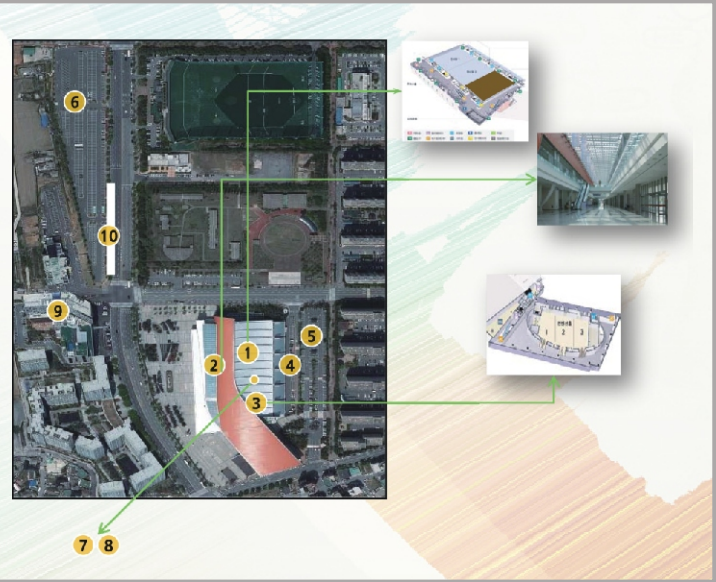
▲ 2012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 일 시 : 2012. 10. 25 (목) ~ 28 (일)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홀
- 주요 프로그램
해의 건축전, 광주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광주 후쿠오카 건축 교류전, 유럽 건축사진 초대전 등 다수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 일 시 : 2012. 10. 23 (화) ~ 26 (금)
- 장 소 : 코엑스 1층 A, C홀
- 주요 프로그램
프로젝트전시관, 건축자재전시관, 국토개발홍보관, 테마기획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전, 대한건축사미술전

▶ 행사장 배치도



- ① 1,2전시관 : 특설무대, 공식행사(기념식), 축제한마당, 쉼터/편의점
- ② 콘코스홀 :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접수/등록/안내데스크
- ③ 컨벤션홀(4층) : 심포지엄/세미나(1, 2, 3홀)
- ④ 화물주차장 : 출연진, 시스템 운영차량 주차 빛고를 “맛” 체험존, 참가자 점심식사 장소 운영
- ⑤ 지상주차장 : 행사진행 관계자, 회원 및 참가자 주차장 운영
- ⑥ 제1주차장 : 회원 및 참가자 주차장 운영(대형버스 주차장) VIP(초청인사), 조직위원, 집행위원, 협회 임원
- ⑦ 2층(프레스센터) : 기자 대기실
- ⑧ 2층(귀빈실) : 초청인사 / 귀빈실 운영(귀빈실 / 205호)
- ⑨ 홀리데이인호텔 :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선포식, 환영만찬,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 건축인의 밤
- ⑩ 광주, 전남 건축물 투어 : 차량 출발 및 도착

▶ 대회장 / 조직위원장 / 집행위원장 초대말 (프로그램북 초대말 中)



강성익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대회장 초대말

대한민국 건축사의 최대축제이자 한국 건축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감할 수 있는 축제 향연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時 + 文 = 建築’이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으로 대한민국 건축사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며,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의 의미,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직위원장 초대말



이창섭 위원장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

예향(藝香)의 도시, 빛고를 광주. 지난 2년간 광주건축사회에서 땀 흘려 준비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건축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건축사회는 금년 5월 발대식을 통하여 전임회장들이 자진하여 분과위원장을 맡아 현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사의 자존과 대한민국의 건축문화 발전과 세계진출의 비전을 10월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소망으로 소리쳐 봅시다.



심상봉 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집행위원장 초대말

존경하는 대한민국건축사 회원 여러분.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건축사대회는 새로운 비전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고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회로써 우리의 역량과 힘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결실이 맺어지는 대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건축사회원 모두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풍류와 풍부한 먹거리를 즐기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주 대회를 통하여 우리 9,000여명의 건축사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부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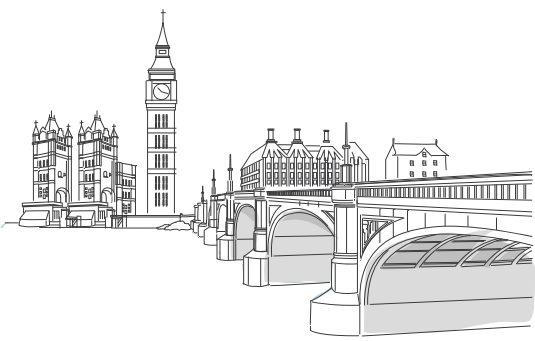


각종 공연행사



건축물 투어 및 맛집 체험행사





이번 호에는 런던 전통의 과거를 지나 현대의 런던건축물들이 어떻게 런던의 시내를 채워나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현재 도시의 정체성에 어떻게 일조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런던 시내의 현대 건축물을 예로 들면서 글을 써 볼까 한다.

-본문 중



이미지1: Lloyd's Building, Richard Rogers, 1986



이미지2: London City Hall, Foster and Partners, 2002

서양건축 :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_2부

» 현대의런던 건축물



김경원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kyongwon@Chosun.ac.kr

1부 : John Nash(1752~1835)의 런던 - 2012년 9월
2부 : 현대의 런던 건축물 - 2012년 10월
3부 : 2012년 11월 예정

선진 서양건축문화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양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2012년 9월호부터 2012년 11월호까지 영국 런던에서 수학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경원 교수가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를 주제로 연재한다.

현대의 건축물이 도시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

런던에서는 다양한 건축 스타일을 접할 수 있으며 명성 있는 건축가들의 디자인들로 계속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가며 그 도시만이 가지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지난 호에는 런던의 Regency period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주제로 시내에 위치한 남쪽의 St. James's Park에서부터 북쪽으로의 Regent's Park까지 John Nash의 작품을 따라 걸어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런던 전통의 과거를 지나 현대의 런던건축물들이 어떻게 런던의 시내를 채워나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현재 도시의 정체성에 어떻게 일조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런던 시내의 현대 건축물을 예로 들면서 글을 써 볼까 한다.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건물과 도시는 보는 이 각자의 취향과 미적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개개인의 여러 직접 간접적인 경험과 느낌에 의해서 주관적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과 계획안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과연 이 건축물이 우리 세대를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건물이 제공하는 공간 안에서 내 감정과 감각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는지? 또한 주변의 평범한 건축물을 넘어서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디자인의 가치를 표출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들을 하게 된다.

물론 건축물들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잘 보존되고 있는 시간이 조금 흐른 과거의 건축물들과 전통 건축물들은 이들 질문들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선 건축물 그리고 조만간 세워질 건물들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일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되고 있는 전통건축물처럼 현재의 최고의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선정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는 도시와 건축물을 계획하고 디자인 할 때 어느 도시나 갖게 되는 고민일 것이다.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모던 스타일

모든 스타일이 그렇듯 '모던 스타일'은 우리 모두의 감각이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현대건축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하나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Richard Rogers의 Lloyd's 빌딩은 English Heritage에 의해서 Grade I의 등급을 받게 되었다. 영국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English Heritage인데 Grade I등급은 웨스트민스터사원, 대영박물관과 같은 역사성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축물에게만 부여되는 등급으로 잉글랜드내의 약 9000여개의 건축물만이 이 등급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만으로 충분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템즈강변을 걷다 보면 런던 관광엽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Tower of London과 Tower Bridge 사이에 눈에 띄는 현대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City Hall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디자인으로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런던 중심의 은행가를 걷다보면 건물의 디자인과 높이 때문에 눈에 띄는 30 St Mary Axe 빌딩은 생김 모양 때문에 거킨(Gherkin)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Foster and Partners와 Arup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런던의 첫 고층생태건물이며 디자인은 기술적, 건축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진보적인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두었는데 처음에는 여러 여론의 중심에 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런던 스카이라인을 변형시키고 런던의 현대 건축물 중 가장 널리 인식되고 크게는 런던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런던은 유기적으로 계획되어 각 특성화된 구역으로 발전되어 왔다. 금융의 이동에 따라 런던시내 중심에서 최근에는 Canary Wharf로 확장이 되었으며 현재 런던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쟁점은 초고층 건물의 위치와 높이에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 완공된 Renzo Piano디자인의 the Shard를 소개할까 한다.

건물의 스케일과 공간을 중요시하는 Renzo Piano의 기존 여러 작품들과는 달리 대중들과 비평가들이 갖는 이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확실하다.

너무 높다, 런던 스케일을 무시했다, 역사성을 해쳤다, 어울리지 않는다, 등등 비난의 여론과 이에 반해 21세기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런던이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옹호여론까지 아직도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는 이마다 양극화를 보이지만 이 투명한 건축물은 런던이 갖는 고유의 성격에 또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대담한 도전정신이 필요한 런던 건축문화

Royal Festival Hall에서 the Shard까지 영국의 현대 건축은 전통성과는 거리가 있을법한 건축 스타일에도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며 선구적인 디자인을 옹호하고 건축 디자인의 특성상 한 번 지어지면 좋던 싫던 적어도 100년 이상을 함께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현재 런던 특유의 성격인 다양성과 복합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현재 우리 자신이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을 해 보아도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런던의 경우처럼 그 시대와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모여 큰 그림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모노톤으로 따라가는 안정적인 디자인에 둘러싸인 지금 대담한 도전정신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이미지3: 30 St Mary Axe, Foster and Partners, 2003



이미지4: the Shard, Renzo Piano, 2012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철저히 기본에 충실한 설계, 그리고 자존심... 건축사가 갖춰야할 덕목이지요. _ 주영민 건축사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지 편집실에서는 부랴부랴 10월호 회원탐방 대상자를 물색했다. 전북지역에서 병원 등 다수의 기능적 건축물의 설계활동을 왕성하게 한, 그리고 그중에서도 건축의 기본을 가장 강조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뷰를 성립시키고자 본지 편집위원인 양우현 건축사가 분주히 움직였다. 전북 전주의 주영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무작정 돌입한 그와의 일문일답을 옮겨본다.

건축사로서 걸어온 길...

전북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설계에 뜻을 두어 제일 먼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희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했다. 그 곳에서 많은 학교를 설계했었고 많은 공부를 했다. 그 다음으로 (주)현신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근무하면서 병원 설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만을 설계하다시피한 곳이 현신 건축이었는데 지금의 내가 많은 병원 건축작품을 설계하게 된 계기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약 10년간을 근무하고, (주)한울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상설계, 공동주택, 상업건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1995년 이곳 전주에 내려와 나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게 됐다. 여러 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느낀 것이지만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건축전공 후배들이 사무소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무소 건축사님들의 마인드를 확인한 후 선택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유인 즉, 사무소 건축사님들의 발전적 마인드가 결국 소속직원들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의 건축철학...

그 동안 설계를 하면서 어떤 용도는, 얼마만큼의 규모든 철저히 기본에 충실한 설계 즉 프로세스를 지켜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초기 계획과정의 개념에서 분석을 하고 프로그래밍 단계화 Schematic Design 및 Basic Design의 단계까지가 전체 설계의 70% 이상을 좌우한다고 본다. 요즈음 저가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축사의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설계를 하다보면 저가설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론은 설계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지키며, 계획단계에서 아무리 바쁘고, 건축주가 여러 요구를 한다해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어지면 확실히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건축철학이다.

건축사로서의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

많은 병원들을 설계하다보니 아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추석 전에도 어느 한 의사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이 어렸을 때 나처럼 건축설계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은 매일 아픈 사람들만 보니까 내 직업이 부럽다고 했었다. 이처럼 남들이 나를 보고 나의 직업을 부러워했을 때에 건축사로서의 자랑스러움이라고 느낀다. 또한 요즘은 내가 설계했던 건축물들을 보면서 왠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부끄러울 때는 건축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설계의 잘못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와 건축사들끼리 도 넘은 경쟁이나 덤핑설계를 할 때 같은 건축사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

존경하는 건축인들은 KPF와 현신건축 김희수 건축사

존경하는 건축인들로는 미국의 건축가 그룹인 KPF(Kahn Pedersen Fox)와 내가 몸담았던 현신 건축의 김희수 건축사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건축가 그룹인 KPF는 건축 작품들 대부분의 디자인이 깔끔하고 명료하며, 혁신적 공법과 디테일한 연구기술들을 실현하고, 과거의 감성적 디자인에 의거하지 않고 개념을 현실로 전환하는데 최적의 시스템과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 이 그룹은 런던의 파노라마시진만 5,000장 이상 보유할 정도로 설계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 한 분은 김희수 건축사로 현재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건축사로서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온 분이기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에피소드 한 가지 말하자면 이전 현신 건축에 있을 때 헌법재판소를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했었고 그중 한 분이 금연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높은 분이기도 하고 설계를 주는 사람들이기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김희수 건축사님은 “여기는 금연 건물이니 담배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단호히 말을 했다. 물론 분위기는 차갑게 돌변했지만 그러한 건축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축사님을 보고 나도 저러한 건축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졌다.

사무소 직원 시절에 추억의 에피소드

여의도 연희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의 에피소드이다. 보통 일을 하다보면 12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건물 문이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동적으로 철야를 하게 됐다. 건물 밑 주차장에 포장마차 있었는데 철야를 하다보면 술을 한잔 먹고 싶을 때가 많아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냈고, 문이 잠겨 3층 창문을 통해 로프로 술과 음식을 나르던 기억이 있다. 매번 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잡다한 음식을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먹고 싶어하던 음식을 골라 올려주셔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우리 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절대 철야를 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그 고생을 내가 겪어보니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업무와 범죄피해자 지원 등의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왼손이 알면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한다는 관념이 있다. 내가 하는 봉사활동을 자세히 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려졌으면 한다. 보통 하는 봉사활동은 범죄피해자지원 활동과 형사조정업무, 그리고 천주교집안으로서 성당에서 병자방문 등의 간단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거는 기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길은 건축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설계비를 함부로 받아서는 안된다. 설계비를 낮게 제시한 건축사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많은 건축주들은 설계비를 적정하게 줄 의향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낮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작품활동에 매진하며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설계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떠한 건축주들도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두 번째는 설계분야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에 설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북 전주의 주영민 건축사. 그의 부드러운 첫 인상은 달리 그의 마인드는 상당히 체계적이며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건축 설계를 비롯한 모든 운영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화, 프로그래밍화 계획이라고 한다. 그가 원하는 감성적이며 디지털화된 작품들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취재 : 양우현 건축사기자 bh1493@chol.com
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주영민 건축사



▲미르아동병원, 산부인과병원(전주 2005년)



▲동화속어린이집(전주 2011년)



▲누가빌딩(전주 2012년)



▲승인빌딩(전주 2012년)

EVENT & EXHIBITION · DESIGN · PERFORMANCE · SPORTS

PANcommunications.com

광주판کم_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8-2(2F)
062) 383.9979

서울판کم (사)아트컴판
주소: 서울시서초구양재동 266-4 / 전화: 02-581-0433

부산판کم
부산시해운대구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713호) / 전화: 051-747-9896

목포판کم
전남목포시산정동 1050-459 / 전화: 061-277-6864

창조적기획! 독창적연출! 이벤트문화 최고파트너!

전국3개지역의판کم과 사단법인아트컴판은
지역별독립된법인체로구성하여
지역업체만이가지고있는지역적노하우와
단일업체가해결하기어려운파트별 전문가적노하우를
효율적으로구성, 운영하고있는전문가집단입니다.

기획 전문가 집단
전국 판کم 기획, 홍보 지원 및 Quality 관리

연출 전문가 집단
전국 판کم 공연, 축제, 디자인 제작, 연출 조직

연출/실행 전문가 집단
전국 판کم 행사 스태프구성 및 연출 / 실행 조직

전통건축문화 이야기_1부

» 전통건축의 현대적 수용



강대호 교수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dhkang@jj.ac.kr

1부 : 전통건축의 현대적 수용 - 2012년 10월

2부 : 2012년 11월 예정

3부 : 2012년 12월 예정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통건축 지면을 상시 개설하고 있으며, 이번 2012년 10월호부터 2012년 12월호까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강대호 교수의 원고를 3회 연재한다.

전통건축이란...

전통은 먼 과거의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아니다. 전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로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표상들에는 그 자체에 지금, 이 장소의 전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전통이란 시간 흐름의 축선 상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그 시대, 그 장소의 삶의 물리적, 정신적 현상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전통은 항상 당시, 당장소의 것으로 나타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 또한 어느 시점과 어느 장소에서도 항상 전통성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을 새롭게 하거나 다시 받아들이거나 현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고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이라고 시간의 틀에 의해 구분하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그 당시의 현재 건축'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의해 전통건축이라고 불리는 과거의 건축, 고건축 모두가 전통성을 가진 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전통성은 고건축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건축에 관련된 전통성에 대해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채, 일반적으로 고건축을 전통건축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는 근세의 서구화 시기에, 이전의 중국과 같은 인접 동양문화권과는 매우 상이한 서양으로부터의 우월적 문화권의 건축과 기존의 건축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의 사용에 기인했으리라 여겨진다. 예컨대, 고려시대의 중국 원나라 문화와 조선시대 이후의 서양문화의 도입은 문화의 수용에 있어, 기존 문화와의 이질성의 차이가 매우 컸을 것이고, 그 문화적 이질성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전통건축에 대한 용어와 관심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서구화 과정을 겪으면서 1970-80년대에 일기 시작한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인 욕구와 함께 더욱 부각되어, 지금까지 이 용어가 고건축의 고유성을 대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전통건축이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가 시대적 구분을 위한 고건축의 동칭 개념이나 고유문화의 정체성의 확인을 위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 역사에서의 각 시대별 전통성을 규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소위, 건축에 관련된 불변성 인자를 수용하는 가변성 인자의 표현이 건축적 전통성이라고 해석하는 필자의 주관적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자의 불변성 인자로서는 햇빛, 기후, 바람, 땅, 물 등의 '풍토적 요소', 그리고 '민족성', '역사성', '장소성' 등이며, 후자의 가변성 인자는 건축 관련 입지환경, 기술, 자재, 법규, 교통, 기능적 수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축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개념은 대별되거나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통건축의 현대적 수용은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 작업'이 아니라, 모든 시대별 건축에 나타난 불변성 인자에 대한 가변성 인자들의 수용적 관계를 전통성의 다양한 수용방법의 관점에서 규명하여 그 '전통성을 현대에 가변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건축의 현대적 수용

서울 북촌, 전주의 한옥마을 등은 이미 본래의 고건축의 아름다운 전통성을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주거용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현대적인 용기로서의 증개축이 앞을 다툰 지 오래이며, 새로운 전통문화의 잠재력의 표상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성 보존을 위한 귀중한 경험은 모두 미래에도 또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성'의 건축적 불변인자를 수용했던 이 시대의 현대적 전통성의 증거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옥들은 기와 지붕의 용마루, 처마 선들의 중첩과 조화, 재료와 형태의 통일성, 그리고 동네 길을 포함한 내·외부 공간 등의 인간적인 스케일(scale)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건축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한옥을 원형대로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들은 전통 한옥이 현재의 생활의 용기(用器)로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한옥 그 자체라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숨쉬는 천연 재료로 지어졌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왜 옛 한옥의 원형적인 수용방법에 의해서라도, 전통성을 붙들려 하는가? 적어도 옛부터 지금까지 변하고 있지 않은 햇빛, 바람, 기후 등의 풍토적 요소의 불변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전통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파트와 같은 현재의 주거문화에서 찾을 수 없는 전통성을, 우리의 자연과 풍토적 요소에 대해 과거 오랜 세월 순응했던 주거생활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한옥에 대한 믿음을, 건강하고 자연적이라는 전통성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편안함을, 생활에 불편을 느껴가면서까지 과거 한옥이라는 건물에서 찾고자 하는 현대인

의 건축적 전통성에 대한 잠재적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오늘날의 현대적 전통성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오늘날의 한옥의 모습은 옛 한옥의 구조인 목구조의 가구식(架構式)구조의 주택만이 아닐 것이며,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위에 얹은 기와 지붕 모습만이 아닐 것이다. 목구조에 적합했던 2.4m 한칸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고건축의 형태, 구조와 재료만으로 직설적으로 모사된 현대의 전통 건축은 건축적 전통성을 포괄하는 내용 즉, '풍토적 요소'와 '민족성' 등의 불변인자를 고려한 가변인자들의 표현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전통 한옥의 현대적 수용의 사례를 보면, 'ㄷ'자 평면 형태는 우리네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구심적으로 모이게 하여 한 몸으로 구성시킨다. 출입문의 전통적 창호화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폐쇄성과 숨결을 느끼게 하는 필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마당 공간의 분할과 통합, 진입 경로의 영역화, 숨쉬는 천연 재료 등...(강대호, '건축세계' 2001년 2월호, 작가의 건축론 참조) 본인이 작업한 프로젝트 중 주택 뿐 만 아니라 공공건물 등에서도 매우 유용한 전통건축 요소의 수용 효과를 확인 하였다.

(사진 참조)

현대적 전통성 복원

우리나라에는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도시에 지금까지 잘 보존해 오고 있는 성문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복원된 사실이 있다. 고건축의 복원은 당시의 모습 자체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있는 현존하는 과거의 실체로서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축물들의 주위는 거의 다 도시화에 의해 로터리로 변하여 겨우 잘려나간 성벽의 끝자락만을 안은 채, 차도로 둘러싸인 섬이 된지 오래다. 이제라도 새로운 복원에 나서야한다. 성문 뿐 만 아니라 성벽도 필요하다면 현대적 건축 언어로 복원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현대적 언어로 들려주어야 한다.

옛 4대문들은 지금도 관련 문헌을 통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금은 구도심(舊都心)이 된 당시의 도시의 영역을 잘 말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4대문으로의 접근로는 지금에도 도심으로의 주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에도 실제로 주요 나들목의 영역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 서대문과 북대문을 그리고 지방도시에 사라진 각 대문을 복원하여, 그곳에 도시적 구도심으로의 나들목을 위한 현재의 건축적 요소와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옛 건축에 '장소성'의 불변인자를 확인하는 새로운 현대적 전통성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기대한다.

타임캡슐(time capsule)은 당시 생활들의 조각들을 잘 보존시켜 후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건축은 1,0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의 실체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주기 위해 땅속에 보관되는 타임캡슐의 내용물이 아니다. 건축은 땅에 기초를 두고 땅위에 서 있는 우리의 오감(五感)으로 느껴지는 구체적인 실물이며,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 미래까지 사용될 우리의 일부인 것이다.

전통 건축은 타임캡슐처럼 먼 과거에 고이 묻어 두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속 숨 쉬고 살아가는 생명체이며 현재 우리의 몸인 것이다. 건축은 과거 전통성에 뿌리 내린 한 몸으로서 가치와 앞으로 뻗어나 현대의 전통성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미래의 꽃으로 피어나야 한다.



6) '공소 계획도시 공중화장실', 필자설계: 전통건축의 음양공간, 용마루 포물선, 바닷가모티브, 주위자연환경등수용에



7) '백산면 종합행정타운', 필자설계: 전통적 외부공간, 차경기법, 동학혁명 기념 공간 등의 수용에

8) '하서면 복지회관', 필자설계: 마을의 입구 공간 기법, 음양공간, 인간스케일 등의 수용에



1) '살림의 주택', (임산소재, 필자설계): 전통성을 현대건축에 구현한 작업의 예(처마, 외벽처리, 지붕의 형태 및 중첩, 공간적분할)



2) '솔잎정' 전경, (김제소재, 필자설계): 전통건축의 현대화, 전통성을 현대건축에 수용한 작업의 예(철골조, 내부공간의 여백, 'ㄷ'자)



3) '솔잎정' 내부거실 빛마당: 'ㄷ'자 평면의 빛마당



4) '솔잎정' 전통건축의 들어열개 문으로서 내부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예



5) '어진집', 필자설계: 전통건축의 채의 개념을 적용한 예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건축설계경험을 교육과 접목하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교수와의 만남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교수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름 석자정도는 알 정도로 유명인사이다. 지금은 건축학도들을 가르치는 교육학자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근무하며 다수의 작품을 남긴 설계아티스트였다. 추석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고 추진된 인터뷰 계획에 따라 바쁜 스케줄로 짝 차있는 이재홍 교수와의 만남은 어려웠다. 이번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로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전남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교수

“어이 없는 건축과의 인연”--> “나의 선택은 곧 나의 책임”--> “꿈은 일을 즐겁게 만드는 명약”

83년도 대학교 공대 일반계열로 1학년을 마칠 즈음 전공(학과) 선택 시 취업이 잘 되는 학과(기계, 전기 등)를 강요하는 아버님께 반항심 및 설득(그 당시 건축공학과와 취업률이 높았음)에 의한 건축 입문이 시작되었고, 대학원 진학 시 또한,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형제들의 설득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러한 6년간의 생활에 있어서 결국 ‘건축’, ‘진학’, ‘취업’ 모두를 내가 선택하였고, 그러다 보니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설계를 시작했던 모든 선후배들이 겪었듯이 ‘박봉’과 ‘격무’의 힘든 직장생활 짧지만 길었던 8년여간의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은 내게 IMF, 일의 수주, 직원들의 불만, 건축주의 횡포 등 업무 이외의 일들로 인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했다. 그래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관심분야는 주거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성

요즘 관심분야는 WHO에서 논의된 주거 환경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과 질병 및 건강과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 주거설계 시 고려 및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건축인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 건축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졸업 후에 맞닥드릴 건축현실은 희망적이지는 않다. 도산되는 건설업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권한 약화 등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도, 발전적으로 추구 및 만들어야 하는 이도 우리 건축인들의 몫이다. 국내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중국시장과 기타 아시아국가 등의 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학계 및 대학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인력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앞으로의 건축계의 희망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 또한 건축계(건설, 건축사, 건축학계)가 상호협력과 대화를 통해 의무와 권리 수호해야 하며, 건축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로 권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영역의 주체가 되는 것, 도시공공디자인의 주체가 되는 것 등이 있다.

최고의 건축물은 생활의 때가 묻어는 있는 집

건축물은 사용자가 편리해야 하며 그 공간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능과 편리함이 우선시되어야만 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생활의 진한 흔적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형이 나 미가 사용자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전남대 신남수 교수와故 장세양 건축사

나의 건축인생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두 분이 있는데, 학자로서의 길을 걸으신 ‘전남대학교 신남수’교수님이 계시고, (주)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 근무시절 밤샘 작업을 통해 건축의 열정을 가르쳐 주신 ‘故 장세양’ 건축사님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갖춘 자 만이 기회를 얻는다.”

이 말에 대해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께서는 공감하리라 보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게으름과 의기소침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병만 일으키는 원인일 것이며, 꿈과 희망을 가진 자만이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매진할 것이고, 이것이 남과 다른 장점과 자격이 갖추어져서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 ‘건축인이여 화이팅!’

앞으로의 계획

건축에 입문 한 지 벌써 30년... 건축인생으로 보면 장년이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들에게 “건축설계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라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건축적 사고와 공간감을 갖추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밝힌 주거환경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대외적(사회적)으로는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서 미미하나마 봉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① 2006년 초청강연회
- ② 설계참여 작품 : 전남대 교수회관 및 교육공학센터
- ③ 설계참여 작품 : 전남대 기초과학 특성화 과학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061-750-3520/http://arch.sunchon.ac.kr)소개]

건축학은 인간의 제반생활을 담는 인공환경을 예술적인 창조지와 첨단산업기술과의 현실적인 접목을 통하여 건축의 당면과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가는 학문이다. 우리 건축학부는 학생들의 잠재적 창의 능력을 개발시켜 건축분야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복지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론과 실체가 조화를 이루고,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풍조와 전통건축문화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미래의 건축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교육 과정

- 건축에 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론과 실체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을 위한 공간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간공학, 그리고 예술성이 종합된 종합학문을 배우며, 국제적 흐름에 따른 전문직능 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에 대비하여 국제권고 기준에 맞는 건축학 교과과정을 수립하여 대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고건축, 현대건축 및 시공현장 답사와 국내·외 저명 건축가 초청강연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식을 쌓고 있으며, 각종 건축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다. 또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외로 교류학생을 보내고 있으며, 해외 문화탐방, 어학연수 등 다수의 학생에게 해외문화체험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정리 : 광속국 전담기자 gkira@empal.com

- 〈학력〉
- 1987.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89.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2007.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경력〉
- 1989년~1997년 : (주)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 근무
 - 1997년~2005년 : (주)건축사사무소 비전 대표
 - 2005년~현 재 :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지회 명예회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 위원
 - 순천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
 - 순천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
 -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설계 자문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합의회 위원
- 〈실적〉
- 현상설계 당선작
- 2001년 전남대학교 교수회관 및 교육공학센터 신축공사
 - 2002년 수문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2004년 곡성입면초등학교 증개축 및 외부환경 시설공사
 - 첨단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2004년 전남대학교 기초과학특성화과학관 신축공사
 - 전남무안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
- 현상설계 입상작
- 1999년 전남대학교 복지회관(유지원) 신축공사 우수작 : 외 2인 공동
 - 2002년 광주 동구 벤처빌딩 신축공사 우수작 : 외 1인 공동
 - 2004년 고씨마을놀이 영상 체험관 건립공사 우수작광주광역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공사 우수작 : 외 2인 공동
 - 담양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우수작
- 기타 실적
- 1999년 백운동 모아병원 신축공사 설계
 - 밀양시 얼음골 관광지구 개발사업 계획안
 - 밀양시 사립 실내수영장, 밀양타워 계획안
 - 부산스포츠허브 계획안
 - 2000년 남원시 원양예식장 증축공사
 - 백운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 2001년 살림산업(주) 쌍촌동 사옥 신축공사
 - 살림산업(주) 나주공장 신축공사
 - 2002년 문산중학교, 금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 월곡동 미래산부인과 병원 신축공사
 - 담양군 가사문화관 증축공사
 - 2003년 광주 북구 임동사무소 신축공사
 - 녹천 교광순 기념관 신축공사
 - 2004년 담양군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신축공사
 - 담양군 야외무대,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신축공사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 광고 : 1,500,000원
- 16면 외전면 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 1/2 광고 : 300,000원
- 하단 1/3 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 / 1년
- 구독료 입금 계좌
- 예 금 주 : 광주 건축 사회
-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제9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개최

—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전야행사로 건축인의 밤, 24일 오후 6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의 9,000여 건축사들이 참가하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함께 개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관단체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의 조용준 회장은 초청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이 지역의 건축인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열정을 다 바쳐 준비를 했다”고 밝히며 “이번 문화제가 새로운 문화도시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풍요로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우리의 광주를 세계 속의 건축문화 도시로 가는 계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작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구성되었던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래본다.

유럽건축사진전

유럽의 시대적 건축을 건축사진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된다.



건축·도시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



대상 : 안재석/글라스 하우스

시민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건축 사진공모전은 지난 9월 말 입상작품이 발표됐다.

총 100여점이 공모작품 중 대상에 안재석 씨의 ‘글라스 하우스’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두 작품에는 강은빈 씨의 ‘빛의 계단’, 남녀록 씨의 ‘노아의 방주’가 선정됐다. 이외에 다수의 우수상과 장려상, 입선작이 선정되었고 이의 입상작은 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안내

10월 24일 (수)	건축인의 밤	오후 6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서구 치평동)
10월 25일 (목) ~ 10월 28일 (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개막식	25일 (목) 오전 11시 1층 전시실
	전시행사	광주광역시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해외건축전,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유럽건축사진 초대전,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전국 건축공모전
	시민, 학생 참여행사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품 전시 건축체험교실, 건축민원상담
	공모행사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품 전시 전국건축공모전
11월 22일 (목)	건축문화심포지엄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전야행사, ‘건축인의 밤’ 10월 24일 오후 6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 행사로 진행되는 건축인의 밤은 광주 건축 관계자를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하여 건축사, 대학 교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자랑스런 건축인 선정과 광주건축공모전 시상식, 전국도시재생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작품 발표는 10월 19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0월 24일 열리는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광주건축사회는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양국 간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광주건축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출품작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20여작품과 일본 JIA 후쿠오카회원 15여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해외건축전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현대건축을 전시하고 해외 건축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품 전시



중등부 최고상 : 김솔(장덕중 2)/광화문 연가

사진공모전과 함께 진행된 그림그리기대회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500여명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지난 9월 말 입상작품이 발표됐다. 이번 그림그리기대회 중등부 최고상에는 장덕중학교 2학년 김솔 학생의 ‘광화문 연가’가 선정됐다. 초등고학년 최고상에는 품암초등학교 5학년 박채영 학생의 ‘수영장과 나무집이 연결된 집’이 초등저학년 최고상에는 하백초등학교 1학년 김찬혁 학생의 ‘성’ 등 다수의 우수작과 입선작품이 선정됐다.

전국 건축공모전 수상작품전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사람과 사람, 자연과 자연, 사람과 문화의 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Community 디자인 공모전인 전국 건축공모전이 지난 6월부터 진행되었다. 접수결과 전국에서 100여점의 공모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오는 10월 18일 대상작품이 발표되며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의 우수 작품 판넬 및 모형도 전시된다.

건축민원상담 / 건축체험교실



문화제 행사 기간 중 건축민원상담실이 개설되어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중심도시 광주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상담내용은 건축법규, 계획, 시공 및 민원에 대한 제반사항이다. 또한 건축그림그리기, 건축퍼즐만들기 등 참여 어린이들을 위해 건축체험교실 또한 운영한다.

건축문화 심포지엄 / 11월 22일 (목) 오후 3시, DJ센터 세미나실

본 전시행사가 종료되고,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해외건축가 초청강연회가 개최된다. 이번 강연회는 저명한 해외건축가를 초청하여 그의 건축철학을 들을 예정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북도청사와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전라북도와 전북건축사회 등 건축 관련 3단체가 주관하는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11월 5일 (월)부터 11월 9일 (금)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전북도청사와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지역건축문화 창달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문화의 장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건축인을 발굴·육성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건축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세번째 개최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좀 더 내실 있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건축 축제로 계획하여 진행된다. 이번 건축문화제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과 건축작품 전시회, 설계·시공사례 발표, 건축사 서화전, 학술발표 및 건축포럼, 건축영화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은 ‘공공 건축물과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나누어 시상하게 되어 건축사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 도내에 건축된 건축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이면 출품할 수 있다. 건축문화제 기간 중에 전라북도건축사회는 국제건축작품전과 건축영화제, 건축사 서화전, 설계와 시공사례 발표를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국제건축작품전에는 지난해에 이어 전라북도 건축사회와 교류하고 있는 중국 강소성과 일본 가고시마현의 건축사 건축작품과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작품을 공동으로 전시하게 되는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은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동북아시아 3개국의 건축문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라북도 건축영화제는 지난해부터 시내 중심지에 소재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게 됨으로서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영작으로는 “말하는 건축가(다큐 95분)”와 “Kochuu(다큐 52분)”를 선정하였으며 도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행사 일정표

행사명	장소 및 주관단체	날짜, 시간별				
		11.5일 (월)	11.6일 (화)	11.7일 (수)	11.8일 (목)	11.9일 (금)
1. 건축문화상 시상 · 계획/준공/공학부문 일반 및 학생 시상 · 특별상 시상	전북도청 대회의실 — 주관 : 전라북도	11:00 ~ 11:40				
2. 건축작품 전시회 · 세계여성건축가협회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 출향건축사작품전 · 한/중/일 작품전	전북도청 — 강당동 전시실 — 본관1층 갤러리 — 주관 : 전라북도, 건축사회	←	09:00 ~ 18:00			→
3. 시화전·그림 사진 서예 등	도청 강당 전시실 — 주관 : 건축사회	←	09:00 ~ 18:00			→
4. 한옥모형전	도청 현관 로비 — 주관 : 전북대학교	←	09:00 ~ 18:00			→
5. 우수 설계·시공 사례 발표	전북도청 중회의실 — 주관 : 건축사회		14:00 ~ 17:00			
6. 학술 발표회	전북도청 중회의실 — 주관 : 건축학회					13:00 ~ 15:00
7. 건축 포럼	전북도청 중회의실 — 주관 : 건축사회					15:00 ~ 17:00
8. 전라북도 건축영화제	전주 디지털독립 영화관 — 주관 : 건축사회			19:30 ~	19:30	

2012년 제3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 목적

- 건축사의 창작의욕 고취 및 건축전공 학생들의 학구열 제고
- 일반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역건축문화 발전 도모

■ 일시 : 2012년 11월 17일 (토) 오전 6시 ~ 오후 9:30

■ 장소 : 서울권역

- ①서울시청 신청사(에너지효율 1등급 청사/친환경 건축)
- ②공간사옥(故김수근 건축사 역작/드라마 “신사의 품격” 촬영장)
- ③인사동 쌈지길(서울 대표 문화거리)
- ④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민간부문-대상)

■ 세부일정 및 내용

시 간	장 소
06:00 ~ 10:00	광주역 (출) ~ 서울시청 신청사 (착)
10:00 ~ 12:00	서울시청 신청사 (관람)
12:00 ~ 13:00	식당 (착 / 중식)
13:00 ~ 14:20	공간사옥 (착 / 관람)
14:20 ~ 15:40	인사동 쌈지길 (착 / 관람)
15:40 ~ 17:20	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 (착 / 관람)
17:20 ~ 19:20	식당 (착 / 석식)
19:20 ~ 21:30	식당 (출) ~ 광주역 (착)

■모집대상 :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

■모집인원 : 80명 이내-선착순(학생 40인, 일반인 40인)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각 대학별 단체 신청시 10인 이상 참가 불가)

■참가비 : 학생 = 20,000원/1인, 일반 = 25,000원/1인 [중식, 석식 포함]-(환불불가)

○입금계좌 : 신한 131-015-175565 광주건축사회 (입금시 : 성명기재)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기간 : 2012. 10. 8 (월) 09:00 ~ 10. 31 (수) 18:00

○접수 : 전화(062-521-0025~6) 및 메일 접수(광주건축사회 대표메일 : gjkira@empal.com)



①서울시청 신청사



②공간사옥



③인사동 쌈지길



④탄허대중사기념박물관

전라북도 건축사회,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 개최

— 지난 9월 13일 ‘도시재생을 통한 건축사 업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3일 목요일 터존뷔페(전주시 송천동 소재)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건축사 업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건축사회와 전주도시재생센터 상가지원팀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지난 7월 26일(목)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포럼에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학계인사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부)는 ‘도시재생의 미래’라는 주제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미래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제시와 이와 관련 테스트 베드사업의 일환인 전주 테스트베드의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도시 재생 프로그램에 지역전문가로서 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의 폭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 등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주석 교수(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도시재생과 전문가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각 부처별로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농촌마을가꾸기, 소도시육성사업, 산촌마을사업 등 산재되어 있는 사업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과 주민참여형 지역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유희중 교수(호원대학교 건축학과)는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제안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을 위한 기존법률(건축법규, 도시정비법, 국계이법 등)의 검토와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작업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에 따라 도시경관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산·학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의 시간이 됐다.

전북건축사회, 원광대·전주대 건축학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 이성엽 회장, 성적우수자에게 ‘전북건축사회 회장상’ 시상과 부상 전달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은 도내 대학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도교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성엽 회장은 지난 9월 19일 개최된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과 21일 개최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에 참석하여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학생을 선발하고 ‘전북건축사회 회장상’과 부상을 전달했다.

전북건축사회에서는 매년 도내 건축(학)과 학위수여식과 졸업작품전에 전북건축사회 회장상을 시상하여 건축학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 수상자: 함승호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작품명: 공간환원(Revert to People)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 3개 도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 가져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는 건축사회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5일 금요일 민주지산 ‘제12회 삼도봉(전북 무주, 충북 영동, 경북 제천) 등반대회’를 전라북도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전북 35명, 충북 25명, 경북 75명 등 건축사회 회원 및 가족, 직원 135명이 참석했다. 등반대회 참석자들은 삼도봉 정상에서 건축사 업계발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갖고,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으며 3개 도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는 오미자 주와 기념품을 준비하여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주)이노탑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창호업체로서 고효율 및 친환경창호인 커튼월, 한옥창, 시스템창, 학교창 등 A/L 및 목재 창호를 개발하여 생산·시공하고 있으며 KS인증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및 다수의 특허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튼월/고정창 더블스킨

시스템창 / 학교창

스틸커튼월(노출/비노출)

한옥창 (A/L / 목재)

자연의窓

이노탑
ISO9001 / F 3117 인증업체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단지 49 (농공단지 내)
TEL:061-373-6920 FAX:061-375-6920
E-mail : inotop1@hanmail.net
홈페이지 : www.inotop.co.kr

제8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 지난 10월 14일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주관, 전남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려



전국건축사 축구인들의 축제인 대한건축사축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라남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됐다.

8회를 맞이한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는 대한건축사 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가 주관하였으며 광주팀을 비롯한 전남, 전북, 대전, 강원 등 전국 20여개 팀이 참가하였다.

14일 열린 개막식에서 주관 지역인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은 “이번 대회가 10월 26일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와 맞물려 우리 9,000여 건축사들의 힘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으며,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정광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협조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님과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님, 그리고 건축사회원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동호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기팀이 7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전북건축사협회에 돌아갔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2 광주도시재생공모전 대상 발표

— 대상에 신상진(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김지연(이로재김효만 건축사무소)씨 작품 선정

쇼.나.기 - 소설 속 나의 이야기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이하 광주건단협)가 주관한 2012 광주도시재생공모전 대상에 신상진(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김지연(이로재김효만 건축사무소)씨가 출품한 ‘쇼.나.기-소설 속 나의이야기(사진)’가 선정됐다.

광주건단협은 지난 9월 17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주제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국민 및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품된 100여 점을 심사한 결과 대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5점, 가작 10점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김도용씨의 ‘주민공동텃밭’, 정은지·김희연(이상 전남대 건축학부)씨의 ‘다시 뿌리내리다’가 선정됐으며 특선은 김중남·추권준, 송경석·탁광, 주다영·박주영, 윤초혜, 한아름·구영주 씨에게 돌아갔다.

대상 1명에는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에는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특선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그리고 오는 10월 24일 개최되는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행사인 건축인의 밤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4부방기고>

노인·장애인의 주거공간 만들기 초청강연회 개최

강현제 학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지난 9월 24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초청대상자는 무토 토시유키씨로 주식회사 무토기건의 대표이며, ‘노인·장애인의 자립과 개호를 위한 주거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진행방식은 무토 토시유키씨가 일본어로 한 구절을 말하면, 본 대학 이동희 교수가 통역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특정 단어는 추가적으로 해석을 했다.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몸은 불편해지게 되는데, 선천적, 병환, 사고, 늙어짐으로 나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늙음은 다른 요소같이 신체적 장애와는 다르게 근력저하와 평형감각, 기억력, 주의력 저하 등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인해 수발자의 연령도 올라가 수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게 되면 수발자나 가족들은 환자가 다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환자는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로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용변이나 샤워를 혼자서 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다.

해결책으로 설비적인 시스템과 설계적으로 건물내부를 개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차를 극복하여 건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단차 해소기를 이용하고, 벽을 보고 있던 싱크대를 거실을 향하도록 하여 부엌일을 하면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부적 지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주택을 개수하게 되면 20만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복지지구 구매시에는 연간 10만엔까지 지원이 되고, 이중 10%는 개인부담금이라고 한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그동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장애인·노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적·설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광주시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선전 기원차 방문해 격려금 전달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은 지난 9월 21일 광주 무등경기장 복싱체육관을 방문하여 광주시복싱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심상봉 회장을 비롯하여 강필서 부회장 등 선수 및 코치진 30여명이 참석했다. 심상봉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이번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995년부터 광주시복싱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격려 방문하고 있다.

광주폴리 현상설계 공모작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전시

— 오는 11월 1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옛 행정동 사무실 공간에서...



광주폴리 현상설계 공모작이 2012광주비엔날레 전시와 함께 비엔날레 옛 행정동 사무실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51개의 공모작이 접수됐고, 이번 전시에서는 36작품을 패널로 만날 수 있다.

공모자들은 문화, 환경, 역사, 빛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폴리의 모습을 상상했고, 이 폴리를 통한 소통의 확대, 광주 상징 장소로서의 기능, 도심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당선작(최우수/고석홍·김미희)인 ‘Memorial Box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은 시민들에게 분양된 성돌(Memorial box)에 개인의 사진·일기·편지 등이 담기고, 비엔날레 기간 이 성돌들이 쌓여져 길거리 가구, 광고벽, 무대 등으로 활용되는 안이다.

이밖에 우수한작인 ‘태양곤충의 도시(Locusta helios/최이규)’와 ‘성황나무’(배상훈, 박문성) 등 다수의 입선작이 2012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된다.

농업종합박람회 ‘2012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 지난 10월 5일 전라남도 나주서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개막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농업종합박람회인 ‘2012 국제농업박람회’가 지난 10월 5일 개막, 2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지난 10년간의 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420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했다.

전시관은 크게 8개로 이 가운데 생명농업관, 농업미래관, 농업예술관 등 3개 주제 전

시관은 ‘빅3’로 꼽힌다. 생명농업관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 생명농업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농업미래관에서는 생명공학(BT), 나노공학(NT), 환경공학(ET), 문화산업(CT), 정보통신(IT), 우주공학(ST) 등 이른바 ‘6T’와의 융합, 종자개발, 유비쿼터스 농업, 디지털 가든 등 최첨단 미래농업을 선보인다. 또 농업예술관에서는 3개관으로 나뉘어 산업곤충과 아열대 식물, 예술로 승화된 농업 등을 보여준다.

국제농업박람회 박준영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때 인류의 영속적 생존이 보장된다”며 “이번 박람회가 어려운 농업 현실을 모두 공감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장권 가격은 어른 개인 7000원, 청소년 5000원으로, 입장권 소지자는 도내 유명 관광지 중 순천만 생태공원 등 8개소를 무료 입장할 수 있고 17곳을 50~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남 담양군 국내 유일의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에 나서

— 지난 10월 10일까지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해

국내 유일의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에 나선 담양군이 지난 10월 10일까지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담양군은 담양읍 운교리 368지번 일원에 오는 2014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학습의 메카가 될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대지면적 1만5000여㎡에 전시관과 생태관, 사육실 등 건축물을 비롯해 생태연못,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갖춘 야외 생태학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의 특징은 건축물 자체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1등급에 부합되는 기능성을 갖춘 최적의 작품으로, 녹색성장의 친환경적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담양군은 공모작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1명(시상금 500만원)과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철거인가? 보존인가?

— 사직공원 팔각정 허물고, 그 자리에 전망타워 건설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1973년 완공된 사직공원 팔각정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전망타워 건설을 추진하자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본지 8월호 보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존가치와 개발논리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적을 지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추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팔각정을 대체하는 전망타워의 건축설계공모에서는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건축사의 작품이 당선된바 있다.(본지 9월호 보도)

전북건축사회, 전주시 효자1동에 불우이웃 성금 전달

－ 이성엽 회장 지난 9월 28일, 추석명절 앞두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전달



지난 9월 28일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동장 김민영)을 방문하여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성금을 전달했다. 그 자리를 통해 김민영 동장으로부터 효자1동 현황과 사업 등을 보고 받기도 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이성엽 회장을 비롯하여 전형직 전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했다.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월에 노인무료급식 및 이·미용 사업 등을 하는 “한사랑복지회”에 성금 전달 및 급식봉사를 계기로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 건축사자격시험, 지난 9월 16일 5개 권역에서 실시

－ 호남권은 약 25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지난 9월 16일 광주권을 비롯한 전국 5개권역에서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실시됐다. 광주권은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자고등학교에서 치러졌으며 약 250여명이 응시했다.

작년 198명 응시에 비해 올해는 252명으로 응시자가 늘었는데 이는 2010년(광주 응시자 160여명/2009년 : 426명) 건축사법에 의한 시험 응시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11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전입(전남 → 광주)

- 정태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광주시 북구 무등로255 (2층)

* 재입회

- 조문송 건축사 / 소울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55 (3층)

* 변경(소재지 변경)

- 공갑열 건축사 / 동남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동계천로 지하 180-0

* 부고

- 천도길 건축사 / 신일 건축사사무소 / 9월 16일 (일) / 모친상

- 이관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10월 8일 (월) / 병부상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25일, 26일
‘광주’에서 뒹꼈습니다.

광주 · 전남 · 전북지역 10월 지역 축제 안내

- ▶ 10. 09 (화) ~ 10. 14 (일)까지 제9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 광주 동구 충장로 금남로, 황금로 등
- ▶ 10. 10 (수) ~ 10. 14 (일)까지 제14회 김제 지평선 축제 - 전북 김제시 벽골제 일원
- ▶ 10. 11 (목) ~ 10. 13 (토)까지 제50회 군민의 날, 제18회 마이문화제 - 전북 진안군 공설운동장
- ▶ 10. 13 (토) ~ 10. 17 (수)까지 제19회 세계 김치문화 축제 - 광주 북구 중외공원
- ▶ 10. 13 (토) ~ 10. 13 (토)까지 2012 목포 로데오 거리 축제 - 전남 목포시 로데오광장
- ▶ 10. 18 (목) ~ 10. 21 (일)까지 2012 전주비빔밥축제 -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 ▶ 10. 19 (금) ~ 10. 21 (일)까지 제19회 남도음식문화잔치 -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 ▶ 10. 19 (금) ~ 10. 23 (화)까지 제39회 고창모양성제 - 전북 고창군 고창읍성
- ▶ 10. 20 (토) ~ 10. 21 (일)까지 제15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 전남 보성군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등
- ▶ 10. 25 (목) ~ 10. 28 (일)까지 2012 페스티벌 외 광주 - 정읍성축제 - 광주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 ▶ 10. 26 (금) ~ 11. 11 (일)까지 2012 대한민국 국향대전 -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근, 이상엽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선,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상윤, 천경훈, 박중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헌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문형록 반석기초이앤씨(주)	1,000,000원
장 철 동일로역(주)	1,000,000원
이주경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유진중 이노탑	200,000원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5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각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행복의 크기

노한나 과장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평범한 삶과 고독 속에서도 남은 건 그들이 남긴 얼굴의 표정과 삶이라는 지표가 아닐까 한다. 어느 누구의 삶도 특별하지 않다. 다들 근심과 슬픔, 기쁨이 얹힌 일상을 살아간다. 돈, 명예, 권력, 그 어느 것도 완전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는 게 훨씬 현명하다.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는 상쾌함, 새 칫솔을 꺼내 쓸 때의 개운함속에도 행복은 있다.

- 김선경 저, 서른 살에 미처 몰랐던 것들 중에서 -」

책장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을 다시 들추어 보는데 책에 밑줄을 그었던 구절이 나왔다. 밑줄 그었던 부분이 정말 마음이 들었고 공감할 수 있는 구절이었다. 책 한 구절이 나에게 주는 생각은 행복의 가치가 특별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찾아가는 길인 듯하다.

친구나 지인들과 만남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즐거운 일 없어?” 이런 식의 대화가 자주 오고 간다. 물음에 대해서 항상 확실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즐겁지 않다는 거, 곧 행복하지 않다는 것일까? 하는 반문을 하기도 한다. 항상 챗바퀴 굴러 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없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없다는 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간속에 있는 것도 엄청 커다란 축복과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항상 존재하기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

오늘 지금 당신이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우리의 행복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있다고 믿는다.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닌 내 주변에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행복이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이 더욱 큰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한다. 아주 큰 게 아닌 소소한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성취나 만족감이 날 더욱 행복하게 함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알게 된다.

입력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깊은 산사에 일입니다

산돼지 가족이 있었지요
지환스님이 가꾸는 고구마 밭에서
8월말 무렵
고구마 수확을 하였지요
며칠뒤 밭정리 하러 들린
스님의 입가에 웃음이 일었지요
왜냐구요
수확된 고구마밭 파헤친
산돼지 가족
아뿔사 한발 늦었지요

올해일 입니다
7월말 무렵
산돼지 가족은 고구마밭을
완전 점령하였지요
작년 일 복수에 산돼지 가족이 이길겁니다
어쩌나
미련한줄 알았던 산돼지 가족
일년간 머릿속에 숨긴
스님 또 한번 크게 웃었지요

내년 6월말 수확할 수 있는
고구마 있으려나

※ 지환스님
무등산의 안양사 스님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을 가졌는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 이경아 / 조화로운 삶 / 2009. 9. 1

박상윤 건축사
건설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우리에게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주고,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힘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인생의 잠언들을 그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선물했다. 이 잠언들은 그가 동서양의 고전 10만여 권에서 철학자와 종교가, 작가 등 300만 명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이 가르침에 톨스토이만의 명상과 사색들을 정리하여 마지막 삼부작을 완성했다. 그는 이 삼부작을 다른 어떤 저작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정도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삼부작에서 행복, 사랑, 이상, 기쁨, 삶, 죽음, 말, 행동, 내면적인 세계, 단순, 자유, 진

리, 영혼, 고통, 노동 등의 주제만을 가려 뽑은 [톨스토이 잠언집 -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을 가졌는가]를 조화로운 삶에서 펴냈다.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생의 잠언들은 실천하기 힘든 것이 아니며, 은밀하게 전해진 비법도 아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잠언들 중 대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삶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도종환 시인은 - 책은 처세를 위해 읽는 책이 아니다. 현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읽는 책도 아니고,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자기 영혼에 투자하는 책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읽어야 할 책이다. 많은 지식을 얻는 일보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톨스토이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 주에 톨스토이 잠언 한 구절씩만 읽으며 생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일주일

에 한 장씩만 읽어도 사려 깊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는 동안 톨스토이 잠언집 한 권을 읽을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 잠언집을 읽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 (도종환 시인)

내 인생은 행복한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희망을 꿈꾸고 사는지,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지...
높고 푸른 가을하늘, 코스모스 활짝 웃고 있는 가로수길, 풍성한 황금들녘, 붉게 물든 석양, 슬슬히 불어오는 가을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수없이 많은 밤하늘에 별처럼 수없이 많은 날들을 인생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삶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권해본다.



사랑이란?

소주처럼 맑고, 양주처럼 진하며,
맥주처럼 풍부하고, 막걸리처럼
소박한것!

정원석 건축사/
디자인 건축사사무소(광주)



이맘때쯤이면 불갑사에서는 상사화축제가 열린다.
상사화는 일과 꽃이 꽃대에 함께 존재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꽃말처럼 이를 수 없는 사랑...아리나...
눈높이를 낮춰야만 보인다는 대웅전 뒷마당의 꽃무릇.

촬영지: 불갑사

촬영자: 박종호 건축사/유민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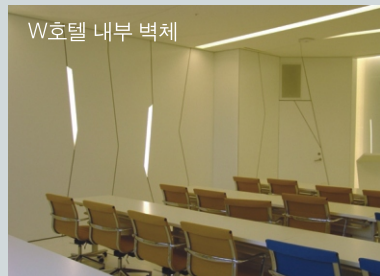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규격 : 1300 × 3050 × 6T



시공사례사진



주력제품 : FBD PANEL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시공사례사진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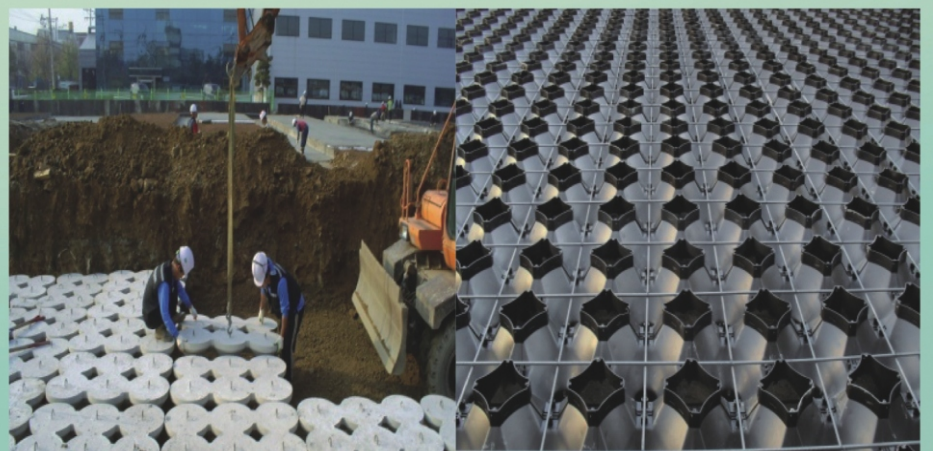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